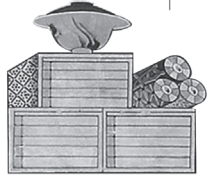


京畿古文書解題

옛 경기를 읽다

음지邑誌
양안量案
중기重記·사례事例·등록騰錄
공사문서公·私文書
가문문서家門文書



1 읍지邑誌

가평읍지加平邑誌	20
강화부지江華府誌	22
고양군여지승람高陽郡輿地勝覽	24
과천현읍지果川縣邑誌	26
광주부읍지廣州府邑誌	28
교동군읍지喬桐郡邑誌	30
교하군읍지交河郡邑誌	32
김포군읍지金浦郡邑誌	34
남양군읍지南陽郡邑誌	36
마전군읍지麻田郡邑誌	38
부평군읍지富平郡邑誌	40
삭녕지朔寧誌	42
수원군읍지水原郡邑誌	44
시흥군읍지始興郡邑誌	46
안산군읍지安山郡邑誌	48
안성군읍지安城郡邑誌	50
양근군읍지楊根郡邑誌	52
양성읍지陽城邑誌	54
양주군읍지楊州郡邑誌	56
양지군읍지陽智郡邑誌	58
양천군읍지陽川郡邑誌	60
여주읍지驪州邑誌	62
연천군읍지漣川郡邑誌	64
영종진읍지永宗鎭邑誌	66
영평군읍지永平郡邑誌	68
용인군지龍仁郡誌	70
음죽군읍지陰竹郡邑誌	72

이천군읍지利川郡邑誌	74
인천부읍지仁川府邑誌	76
장단군읍지長湍郡邑誌	78
적성현읍지積城縣邑誌	80
죽산군읍지竹山郡邑誌	82
중경지中京誌	84
지평군읍지砥平郡邑誌	86
진위읍지振威邑誌	88
통진읍지通津邑誌	90
과주군읍지坡州郡邑誌	92
포천군읍지抱川郡邑誌	94
풍덕군읍지豐德郡邑誌	96

2 양안量案

경기도수원군양안京畿道水原郡量案	100
경기도안성군양안京畿道安城郡量案	102
경기도양주군소재내수사장토사검개타양안 京畿道楊州郡所在內需司庄土查檢改打量案	104
경기도용인군양안京畿道龍仁郡量案	106
경기안산군양안京畿安山郡量案	108
경기양성군양안京畿陽城郡量案	110
경기양지군양안京畿陽智郡量案	112
경기여주군양안京畿驪州郡量案	114
경기음죽군양안京畿陰竹郡量案	116
경기진위군양안京畿振威郡量案	118

3 중기重記·사례事例·등록謄錄

경기각읍신정사례京畿各邑新定事例	122
경기감영각방중기京畿監營各房重記	124
경기관초京畿關草	126
경기수영각고도중기京畿水營各庫都重記	128
기영신정사례畿營新定事例	130
기영장계등록畿營狀啓謄錄	132
기전영사례畿甸營事例	134
기전영지畿甸營誌	136

4 공·사문서公·私文書

1401년 사패왕지賜牌王旨	140
1633년 경기수사京畿水使 해유문서解由文書	142
1660년 노 산복山福 소지所志 1	144
1660년 노 산복山福 소지所志 2	147
1660년 노 산복山福 의송議送	149
1756년 정홍순鄭弘淳 유서諭書	151
1756년 정홍순鄭弘淳 영서승書	153
1794년 경기암행어사봉서京畿暗行御史封書	155
1798년 경주인京主人 오성흠吳聖洽 고목告目	157
1798년 양천현령陽川縣令 임홍원林弘遠 서목書目	160
1799년 경기감사京畿監司 감결甘結	162
1799년 노문路文	164
1799년 양천읍리陽川邑吏 사통私通	166
1803년 강화부유수江華府留守 관關	168
1817년 박현익朴顯翼 의송議送	170
1821년 광주부廣州府 입안立案	172
1842년 서중보徐中輔 등 상서上書	174

1845년 이천도호부사利川都護府使	
해유문서解由文書	176
1846년 김원정金源鼎 등 상서上書	178
1847년 박정석朴鼎錫 단자單子	180
1875년 경기관찰사京畿觀察使 감결甘結	182
1875년 시흥현령始興縣令 관關	184
1887년 임영근任永根 단자單子	186
1887년 임영근任永根 산도山圖	188

5 가문문서家門文書

광명 오리 이원의 종가 고문서	192
광주 기곡 광주안씨 순암종가 고문서	194
군포 속달 동래정씨 정난종 종가 고문서	197
남양주 해주정씨 해평부원군 종가 고문서	201
수원 평강채씨 고문서	204
시흥 신안주씨 고문서	206
시흥 안동권씨 화천군과 고문서	208
시흥 이상기가 고문서	210
시흥 파평윤씨 고문서	212
안산 부곡 진주유씨 고문서	214
안성 양성 해주오씨 정무공과 고문서	217
양주(동두천) 안흥 광주정씨 고문서	220
여주 원주원씨 원두표 후손가 고문서	222
용인 오산 해주오씨 추탄공과 종가 고문서	224
이천 부발 풍천임씨 고문서	227
의정부 장암 반남박씨 서계 종가 고문서	230
하남 함평이씨 고문서	233
화성 거창신씨 고문서	235
화성 남양홍씨 고문서	237
화성 들목조씨 고문서	239
화성 수성최씨 한림공과 진사공후손 고문서	241
화성 함평이씨 고문서	243
화성 해풍김씨 고문서	245

들어
서며

-
1. 머리말
 2. 경기 고문서 현황
 3. 유형별 해설
 4. 맺음말



경기 고문서 개요와 현황

박성호

한국학중앙연구원

1. 머리말

이 연구는 경기도사京畿道史 연구를 위한 기초적인 고문서 자료 현황 파악의 일환으로 수행되었다. 특히 전통시대 경기도사 연구를 위하여 현 시점에서 파악 가능한 고문서의 현황을 개략적으로 파악하고, 차후 진행될 본격적인 연구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제시된 고문서에 대한 해설 작업을 목표로 하였다.¹⁾

우선 이 연구에서 다루는 고문서의 개념 내지 범주에 대해 간략히 설명할 필요가 있다. 현재 고문서학계에서는 일반적으로 발급자와 수취자라는 쌍방이 존재하고, 계약이나 증명 등 발급 목적이 명료하며, 그로 인한 법적 제도적 효력이 발생하는 것을 ‘문서’라고 정의하고 있다. 시기의 하한은 1910년 일제강점기에 접어들기 이전까지를 하한으로 다루고 있다. 다만, 이러한 엄격한 조건을 적용할 때 고문서의 범주에서 다룰 수 있는 자료는 매우 제한된다. 따라서 자료 활용 목적에 따라 이러한 엄격한 조건을

1) 경기문화재단의 의뢰로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대학원 고문헌관리학 전공 교수(박성호)와 대학원생(권유정, 남은별, 송지혜, 한상민)이 함께 자료 조사와 집필을 수행하였다. 대상 선정 및 전체 해제는 박성호가 맡고, 각 장별 자료 해제는 대학원생이 분야별로 분담하여 집필하였다.

벗어나 호적, 양안, 일기 등 발급 및 수취 관계가 성립되지 않는 필사자료도 고문서의 범주에서 다루기도 한다.

그리고 현재 경기도사와 직접적으로 관련지을 수 있는 고문서가 일정한 소장처에 안정적으로 전래된 사례는 알려져 있지 않다. 조선시대 경기감영이나 각 군현 단위의 관아에서 보관되어왔을 문서가 온전히 전래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경기도 관련 고문서의 현황을 체계적으로 파악한 선행 연구도 찾아보기 힘들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자료적 한계를 감안하여 ‘경기 고문서’의 범주를 다소 유연하게 해석하여 각 군현의 읍지, 양안, 중기, 사례 등을 비롯하여 경기도 내에 세거한 가문 소장 고문서, 경기감영 및 예하 군현 명의로 발급된 개별 문서 등을 포괄하여 다루고자 한다.

그리고 이번 연구를 통해 새로운 자료를 신규로 발굴할 수는 없는 상황이므로 현재 시점을 기준으로 국내의 주요 고문헌 소장처에서 제공하는 자료 목록, 검색 시스템, 전시 도록, 고문서 자료집 등을 근거로 경기도와 관련성이 높은 고문서를 선별하였다. 선별 결과 크게 읍지, 양안, 중기·사례·등록, 공·사문서, 가문 문서로 분류할 수 있었고, 이하에서는 이에 대한 전체 현황과 유형별 고문서에 대한 개괄적인 설명을 기술하고자 한다.

2. 경기 고문서 현황

본 보고서에 수록된 경기도 고문서는 총 104개 항목이다. 물론 이 가운데 가문 문서는 가문별로 전래된 다량의 고문서를 한 항목으로 다루기 때문에 가문문서의 수효를 합산한다면 전체 고문서의 개별 점수는 이보다 훨씬 커진다.

우선 읍지는 《가평읍지》를 비롯하여 총 39 항목으로 정리하였다. 세부적으로는 가평, 강화, 고양, 과천, 광주, 교동, 교하, 기포, 남양, 마전, 부평, 삭녕, 수원, 시흥, 안산, 안성, 양근, 양성, 양주, 양지, 양천, 여주, 연천, 영종, 영평, 용인, 음죽, 이천, 인천, 장단, 적성, 죽산, 중경, 지평, 진위, 통진, 파주, 포천, 풍덕이 해당된다. 대부분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과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에 소장된 자료이다. 이 가운데 지역별로 소장처를 달리한 동종의 읍지가 존재하기도 하지만, 이런 사례는 모두 같은 항

목으로 다루었다.

양안은 총 10 항목으로 정리하였다. 여주, 용인, 안성, 진위, 수원, 양성, 안산, 양지, 음죽, 양주 지역의 양안이다.

경기감영의 중기, 사례, 그리고 장계등록도 별도로 8 항목을 정리하였다. 조선시대 경기감영 운영의 일면을 살펴볼 수 있는 자료이다. 다만, 경기감영과 직접 관계된 자료는 현재까지 확인된 수량이 많지 않아서 이번 조사를 계기로 좀 더 적극적인 자료 발굴이 요구된다.

공·사문서로 설정한 항목은 현재까지 각종 고문서 조사 수집 사업의 결과로 공개된 개별 고문서 가운데 경기감영, 경기도 각 군현과 직간접적으로 관계된 문서들은 뽑아 놓은 것으로서 총 24 항목을 수록하였다. 이 부분은 기관이나 개인이 소장하고 있는 고문서 가운데 앞으로 공개 범위가 보다 확대된다면, 향후 추가로 다루어야 할 수요는 증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지역적으로 경기도를 배경으로 작성된 문서나 경기감영 및 예하 관사 등에서 생산된 공문서와 사문서는 모두 여기에서 다룰 수 있다.

끝으로 가문문서에서는 경기도 내에 세거한 종가, 문중 등 경기도 내에서 오랜 기간 동안 지역적 연고를 둔 개별 가문의 고문서를 대상으로 삼았다. 지금까지 발간된 각종 자료집, 도록, 온라인 자료관 등을 토대로 23개 가문 소장처를 추렸고, 해당 소장처에 소장된 고문서의 전체 현황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기술하였다. 소장처를 기준으로 23개 항목을 나누었지만, 개별 고문서의 수요를 합산해 보니 7,432점 가량으로 파악되었다.

이상의 현황을 표로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경기 고문서 현황

구분	읍지	양안	중기·사례·등록	공·사문서	가문문서	합계
항목	39	10	8	24	23 (7,432점)	104

3. 유형별 해설

현재 한국의 여러 고문헌 소장기관이나 연구기관에서는 고문서를 분류할 때 크게 문서 발급자를 기준으로 나누는 방법, 문서 유형별로 나누는 방법, 내용에 따라 주제별로 나누는 방법 가운데서 각 기관이 추구하는 분류 목적에 맞추어 적합한 방안을 채택하고 있다. 발급자를 기준으로 할 때는 주로 국왕문서·왕실문서·관부문서·사인문서 등으로 나눈 다음 그 하위 항목에 구체적인 문서명을 설정하고 있고²⁾, 문서 유형별로 나눌 때는 교령류·소차계장류·첩관통보류·증빙류·시문류 등과 같이 비슷한 성격의 문서들끼리 묶은 다음 그 하위에 개별 문서명을 배열하고 있으며³⁾, 주제별 분류에서는 정치·경제·사회·문화·교육·의례 등과 같이 내용을 기준으로 분석하여 동일한 주제 항목 아래에서 함께 다룰 수 있는 여러 종류의 문서를 열거하고 있다.⁴⁾

이번 연구는 특정 공간이나 소장처에 전래되어 서로 유기적인 상관관계를 갖고 있는 고문서를 다루는 것이 아니라, ‘경기도’라는 키워드로 연결될 수 있는 다양한 소장처에 전래된 고문서의 전체적인 현황을 제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존에 적용하던 고문서 분류법과는 다소 다른 방식으로 고문서를 분류 및 배열하였다. 이미 목차에서 제시된 것과 같이 크게 <읍지邑誌>, <양안量案>, <중기重記·사례事例·등록騰錄>, <공·사문서公·私文書>, <가문문서家門文書>로 나눈 다음 그 하위에 개별 고문서를 자료명 기준가다다순으로 정리하였다.

<읍지>, <양안>, <중기·사례·등록>은 대체로 책자 형태를 띠고 있기 때문에 성책고문서成冊古文書라고 지칭하기도 하고, 기재된 내용을 살펴볼 때 개별 고을의 연혁, 재정, 행정 등 편찬 당시의 현황이 기재되어 있기 때문에 장부류帳簿類 또는 치부기록류置簿記錄類 고문서로 다루기도 한다. 여기서는 자료의 성격과 차후 활용도 등을 고려하여 이들을 성책고문서나 치부기록류 고문서로 묶지 않고 개별 유형으로 나누었다.

그리고 지금까지 공개된 여러 소장처의 낱장 고문서 가운데서 경기도와 직간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것들을 뽑아서 <공·사문서>로 묶었고, 조선시대로부터 최근까지 경기도 내에 세거한 가문에 전래된 고문서를 <가문문서>로 따로 분류하여 개략적인 현황을 요약 제시하였다.

2) 최승희, 증보판 《한국 고문서 연구》, 지식산업사, 1989(초판).

3) 윤병태 외, 『한국고문서정리법』,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4.

4) 전경목, 「고문서의 조사와 정리 방법론」, 『영남학』 9, 경북대학교 영남문화연구원, 2006.

이하에서는 이러한 다섯 가지 유형별로 분류된 고문서의 개략적인 특징을 소개하고자 한다.

가. 읍지

19세기 후반에 편찬된 경기도 여러 고을의 제반 현황을 담은 읍지를 39 항목으로 나누어 요약 수록하였다. 앞서 경기 고문서 현황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가평을 비롯한 39개 고을이 포함된다.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을 비롯한 국내외 여러 고문헌 소장처에 소장된 읍지 가운데서 경기도 부분을 추려냈다.

읍지의 구체적인 편찬 시기는 《영종진읍지》, 《영평군읍지》, 《적성현읍지》가 1842년(헌종 8)에 제작되었고, 《중경지》가 1881년(고종 18), 《양주군읍지》가 1895년(고종 32), 《안산군읍지》가 1900년(광무 4)에 제작되었으며, 나머지 읍지는 모두 1899년(광무 3)에 제작되었다.

현재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고려대학교 해외한국학자료센터 등의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원문 열람 등의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다. 읍지는 조선후기 특정 고을의 연혁으로부터 경계, 호구, 토지, 군역 등 해당 지역의 제반 현황 정보를 정리해 놓았기 때문에 읍지가 편찬될 시기를 기준으로 한 개괄적인 정보를 참고하는데 유용하다. 따라서 이미 각 지역별 지역사 연구나 시군지 편찬에 활발히 인용되고 있다.



『가평읍지』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소장)

나. 양안

양안은 조선시대와 대한제국기에 전국 각 지역별로 전답의 현황을 조사하여 장부 형태로 작성한 일종의 토지대장이다. 이 양안에 기재된 전답의 현황을 토대로 국가는 조세 부과 등의 근거로 삼았다. 대개 전답의 자호字號 및 지번을 기준으로 사표四標, 소유주나 경작자, 토지의 등급, 결부수結負數 등이 기재되었다.

이번 연구를 통해 소개하는 경기도 지역 양안은 수원, 안성, 양주, 용인, 안산, 양성, 양지, 여주, 음죽, 진위 등 10개 지역에 대한 것이다. 양안의 편찬 시기는 대부분 1899년(광무 3)~1902년(광무 6)인데, 자료에 따라 1901년(광무 5)에 편찬된 양안도 있고, 1902년(광무 6) 양지아문量地衙門이 지계아문地契衙門에 동폐합되면서 작성된 정서본正書本도 있다. 단, 《경기도양주군소재내수사장토사검개타양안京畿道楊州郡所在內需司庄土査檢改打量案》만은 1905년(광무 9) 2월에 작성된 것이다.

모두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에 소장된 자료로서 시기적으로는 대한제국기에 시행된 양전量田 사업을 기반으로 편찬되었다. 따라서 이 양안들은 대한제국기 경기 지역의 토지 현황과 내수사의 장토 관리 등의 일면을 엿볼 수 있는 기초 자료가 된다.

대한제국기에 접어든 1898년(광무 2)에 전국의 토지를 측량하기 위해 양지아문이 설치되어 양전사업이 진행되었다. 그런데 1901년(광무 1) 전국적으로 큰 흉년이 들어 이 사업은 지속되지 못했고, 1902년(광무 6) 양전과 토지소유권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지계아문이 설립되면서 기존 양지아문의 업무가 지계아문으로 인계되었다. 여기서 제시된 양안은 모두 이 당시 양지아문과 지계아문을 통해 이루어진 양전 실무의 산물이다.

다. 중기, 사례, 등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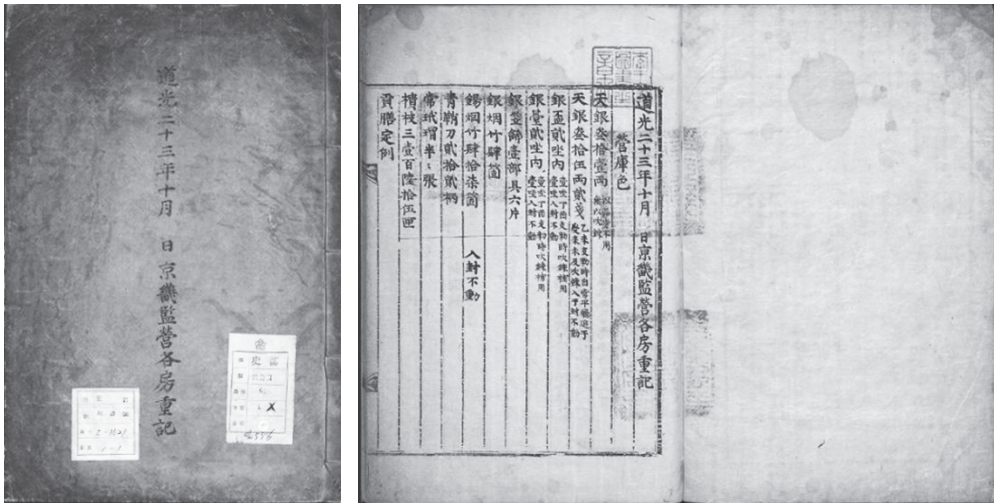
여기서는 읍지와 양안을 제외한 여타 성책成冊 형태의 고문서 8항목을 모았다. 자료명을 놓고 보면 사례事例, 중기重記, 등록騰錄과 같이 각기 다른 특징을 띠지만, ‘경기’, ‘기영’, ‘경기수영’ 과 같이 경기 감영 및 수영의 운영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는 성책고문서라는 공통점이 있다.

편찬 시기는 《기영장계등록》이 1783년(정조 7)~1784년(정조 8) 사이 경기도관찰사 심이지沈頤之가 왕에게 보고한 장계들을 수록하고 있어 다른 자료에 비해 이른 편이고,

나머지는 모두 1800년대 중·후반에 작성되었다.

《경기감영각방중기》와 《경기수영각고도중기》에는 각각 경기감영과 경기수영의 소관 업무에 따른 재물 현황 등이 일목요연하게 수록되어 있다. 이렇듯 중기는 작성 당시 관아에 보관된 여러 품목의 명칭과 수량을 기재해 놓았기 때문에 관장(官長)의 해유(解由)를 위한 인수인계문서의 역할도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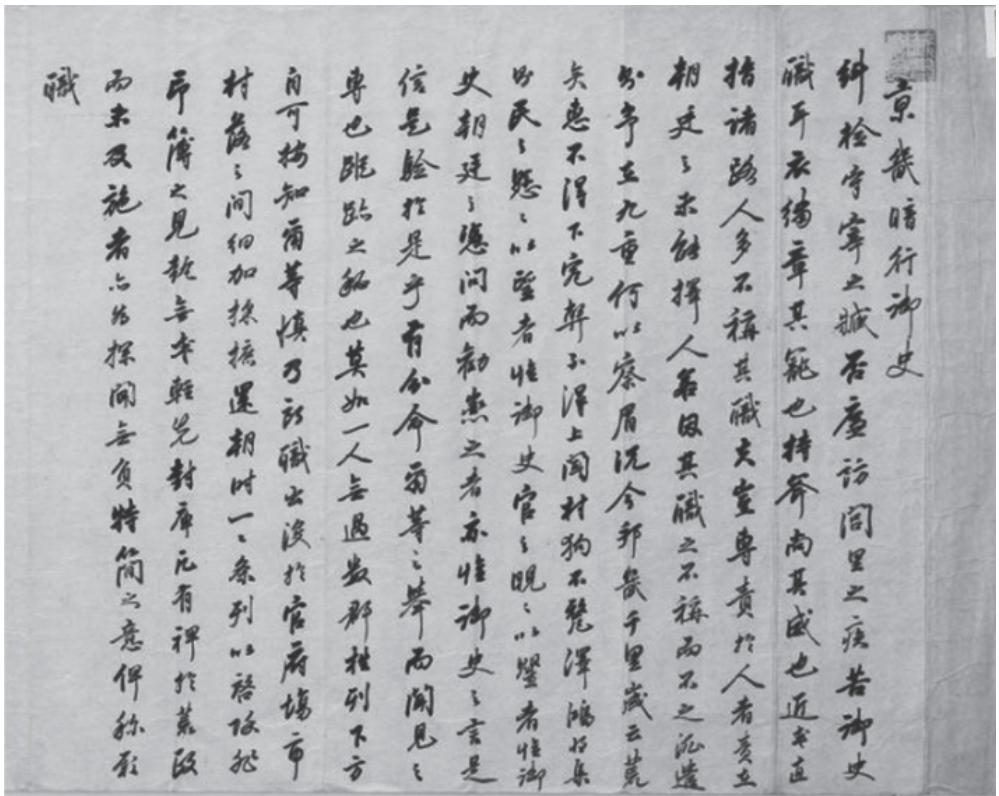
《경기각읍신정사례》를 비롯한 사례事例 3건은 모두 1894년(고종 31)에 작성되어 갑오개혁이 단행된 직후 경기도 내의 재정 상황을 살펴볼 수 있다. 그리고 《경기관초》에는 1886년(고종 23)~1895년(고종 32) 사이 의정부에서 경기감영 및 경기도내 여러 관사에 보낸 공문서인 관關이 다량 등사되어 있고, 앞서 짧게 언급한 바와 같이 《기영장계등록》에는 경기도관찰사 심이지가 재임하고 있던 시기의 관찰사 장계가 수록되어 있어 당시 경기감영의 행정과 주요 사안을 살펴볼 수 있다.



《경기감영각방중기》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소장)

라. 공·사문서

공·사문서에는 낱장 형태의 원본 고문서 가운데서 발급자나 수취자, 내용 등을 검토하여 경기도와 관련이 있는 것들을 모아 24 항목으로 구성했다. 이어서 편성한 <가문 문서>에는 경기도에 세거한 가문 소장 고문서를 소장처별로 묶어서 소개한 반면, 경기도 이외의 소장처에 있는 고문서 가운데서도 경기도와 관련된 배경이나 내용을 담고 있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낱장 고문서들을 선별하여 여기에서 다루었다.



1794년 경기암행어사봉서(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소장)

작성 시기로 보면 1401년(태종 1)부터 1887년(고종 24)까지 폭넓게 분포되어 있고, 문서의 유형도 국왕 명의로 내린 문서로부터 관에서 발급한 문서, 개인이 관에 제출한 문서 등 다양하다.

먼저 공문서로는 조선 개국 초인 1401년(태종 1)에 지안산군사知安山郡事 조흠에게 경기도 내에 소재한 토지를 하사하면서 왕명으로 발급된 사패왕지가 있다. 이때 하사된 토지는 지금의 수원, 화성, 여주, 광주 지역에 해당한다.

1633년(인조 11)과 1845년(헌종 11)의 해유문서는 각각 경기수사京畿水使와 이천도호부사利川都護府使의 관직 인수인계에 관한 공문서이다. 전임관으로부터 직무와 비품 등을 인계받은 후임관은 그 이상 유무를 직속상관에게 문서로 보고했고, 이 보고를 토대로 절차를 거쳐 중앙의 이조, 병조, 호조 등에서 해유解由(인수인계)의 가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하여 당사자에게 통보해 주었다. 이런 일련의 행정 절차를 해유문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1756년(영조 32) 정홍순에게 내려진 영서수첩과 유서諭書는 경기도관찰사에 제수된 정홍순에게 발급된 왕명문서다. 조선시대에는 신임 관찰사를 제수할 때 왕이 해당 도의 병권과 행정권을 관할하는 막중한 책임을 맡기면서 왕명의 상징인 교서敎書와 유서諭書를 발급했다. 그런데 1756년(영조 32)에는 영조의 아들 사도세자가 대리청정을 하던 시기였으므로 왕의 교서 대신 왕세자의 영서가 발급되었다.

이 외에도 1794년(정조 18)에 경기암행어사에게 암행 임무를 부여하면서 발급한 봉서封書, 1798년(정조 22)에 양천현령 임홍원이 도순찰사都巡察使에게 몇몇 사안에 대해 보고한 서목書目, 경기도관찰사를 비롯하여 강화부유수, 시흥현령, 광주목사 등의 명의로 발급된 관關, 감결甘結, 입안立案 등의 공문서가 있다.

민간에서 발생한 사안을 다룬 문서로는 1660년(현종 1) 경기도 양주에 사는 노奴)산복이 상전을 대신하여 상전택 노비 추쇄推刷 문제로 경기도 금천현, 형조, 경기감영에 연차적으로 올린 문서가 있다. 전라도 해안현의 해남윤씨택의 노비 소유권 다툼과 관계된 문서로서 당시 양반가의 노비 분쟁 및 추쇄 상황을 엿볼 수 있다.

기타 조선후기 경기도 내에서 발생한 산송山訟 문제에 대한 민원문서, 관찰사께 지역의 훌륭한 인재를 추천하기 위해 지역민들이 연명聯名해서 제출한 문서 등을 확인할 수 있다.

마. 가문문서

가문문서에는 조선시대로부터 현재까지 경기도 내에 세거한 가문 가운데 소장된 고문서의 현황이 공개된 가문 23곳의 현황을 수록하였다. 최근 조사 결과에 따르면, 경기도 내에는 불천위不遷位 신위만 해도 144위가 있고, 후손가를 통해 제사 봉행 등이 이루어지고 있다. 경기도에서도 타 지역 못지 않게 여전히 조선시대 이래의 종가와 문중의 명맥이 이어지고 있다.

다만 종가나 가문의 유지와 별도로 고서나 고문서 등의 문헌자료의 전래 유무에 대한 전반적인 조사나 현황 파악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다. 이 보고서에서는 전시회, 도록, 자료집 등을 통해 비교적 잘 알려진 23개 가문의 사례를 수록하였지만, 향후 경기도 내 각 시군 단위에 대한 자세한 고문헌 조사 활동이 진행된다면, 소개할 수 있는 사례는 지금보다 훨씬 많아질 것으로 보인다.

이번 연구에서 수록한 대상은 광명시의 전주이씨 가문, 광주시의 광주안씨 가문, 군포시의 동래정씨 가문, 남양주시의 해주정씨 가문, 수원시의 평가채씨 가문, 시흥시의

신안주씨·안동권씨·전주이씨·과평윤씨 가문, 안산시의 진주유씨 가문, 안성시의 해주오씨 가문, 양주시의 광주정씨 가문, 여주시의 원주원씨 가문, 용인시의 해주오씨 가문, 이천시의 풍천임씨 가문, 의정부시의 반남박씨 가문, 하남시의 함평이씨 가문, 화성시의 거창신씨·남양홍씨·풍양조씨·수성최씨·함평이씨·해풍김씨 등 23개 가문의 7,400여 점의 고문서이다.

시기적으로는 조선전기인 15세기 사례로부터 조선후기 및 대한제국기에 작성된 문서들이 골고루 포함되어 있고, 내용적으로도 한 개인의 관료 생활로부터 지역의 일상에서 비롯된 다양한 이야기들이 두루 담겨 있다. 이들 개별 문서에 대한 상세한 연구가 진행된다면 전통시대 경기도 내에서 있었던 크고 작은 새로운 사실과 이야기들이 발견될 것이다.

4. 맺음말

이번 연구를 통해 경기도를 배경으로 생성된 고문서에 대한 기초적인 현황 파악과 해설이 이루어졌다. 이를 통해 전통시대 경기도 내의 관청 간에 유통된 문서, 민간에서 작성된 각종 문서 등을 통해 알 수 있는 당대의 상황의 일면을 파악할 수 있었다. 이 연구에서 다룬 고문서들은 모두 출처가 분명하기 때문에 향후 진행될 조사나 연구에도 유용하게 활용될 것이다.

다만, 이 연구가 갖고 있는 기본적인 한계는 역시 여전히 경기도 전역에 산재하고 있을 고문서의 전체 현황에는 접근하지 못했다는 점이다. 차후 지속적으로 경기도 관련 고문서들을 체계적으로 조사 정리하여 자료집이나 학술서 발간, 데이터베이스 구축 등의 사업으로 확장된다면 경기 고문서가 보여 줄 수 있는 유기적인 연계성 내에서 지금보다 더 중요한 발견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